

# 가매 진다

유승영

가족들과 불을 피웠다.  
불을 지켜 보았다.

'탁.. 탁' 타고르고 있을때  
사방이 가매 젖었다.  
누우며 타고르는 불을 쳐다봤다.

그러더니 가매 진 바람이  
타오르는 불을 가매지게  
만들었다. 재가 흩날렸다.

